

도심에 위치하는 대학캠퍼스 마스터플랜에 관한연구

- D/K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s in Urban Area - Focusing on D & K University Case Study -

김진모* 조성용** 최진희***
Kim, Jin-Mo Cho, Sung-Yong Choi, Jin-Hee

Abstract

Recently, an active rel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city has become an issue of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field of campus planning. Campus master plan is known as long range development plan, and is not simply an abstract drawing work but definite scaling work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lanning process and relation between university and the region through master plan of master plan of D University and K University which located in Seoul city.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master plan of D universities which are presented in existing an instance and K universities master plan did the service blueprint with base and investigated. And both university currently analyzed the situation which is being placed and grasps a problem point, presented that alternative with what kind of method.

키워드 : 도심지, 대학캠퍼스, 마스터플랜, 개발계획

Keywords : Urban Area, Campus, Master Plan, Development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도시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배제해 온 것들에 의한 사후적 결과물로서의 도시, 건축을 향한 책임의 추궁이 자리하고 있다.

실로 다양한 사례에 있어 기존의 폐쇄적이며 경제성이나 생산성 일변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되었던 다양한 요소들이 도시와 건축의 계획과정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간의 논의 중점이 되고 있는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사회개방성과 친환경성 등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현대에 있어서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의 상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편, 대학 캠퍼스에 있어서도 상술한 흐름은 예외일 수 없다.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의 하나로서 대학 캠퍼스가 차지하는 역할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도시나 지역사회의 중추적 기능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캠퍼스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 교육·연구, 지원, 주거 시설의 규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의 근본적인 개선의 요구와 더불어 대학주변의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도시와 건축에 대한 논의와 그 논의에 대한 흐름이 대학 캠퍼스 구성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형태를 띠고 반영되고 있는지 최근 캠퍼스 마스터플랜 계획을 시행한 도심내의 D대학교과 K대학교의 사례를

* 정회원, 광운대 건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kimjinmo@kw.ac.kr)

** 정회원, 광운대 건축학과 조교수

*** 정회원, 경기대 건축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2009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연구됨.

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시의 일부분으로써 도시가 갖는 문제에 어떠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도심내의 대학캠퍼스 조성의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대학캠퍼스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을 나타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기술내용 및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마스터플랜 계획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각 대학이 기존의 캠퍼스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을 문제점으로써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이를 통해 각 계획이 제시하는 내용의 타당성과 각 사례들이 앞으로의 대학 캠퍼스조성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2. D대학교의 사례

2.1. 캠퍼스 개요 및 계획 개념

1) 계획의 개요

먼저 D대학에 관련된 건축개요 및 조감도,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다.

D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88,803㎡, 건축면적 21,859㎡, 연면적 192,990㎡ 용적률 242%의 건축 밀도를 보이며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다. 또한 자연경관지구로 설정되어있다. 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있나, 법제한 완화조치 및 학교시설 세부조성계획수정(5층, 18m)을 받을 것으로 가정한 계획이다.

2) 기존 계획의 문제점과 새로운 계획의 개념 및 목표

D대학교의 지리적 위치는 서울의 도심과 남산줄기와의 입지라는 이중적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도심 축과 생태 축을 이어주는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캠퍼스 조성은 증가하는 교육적 제공을 위한 캠퍼스 강의시설의 부족은 물론, 지역의 일부분으로써 남산

표 1. D대학교의 건축개요

	D대학교 필동 캠퍼스 부지 및 배후지역사회	
	필동캠퍼스	배후지역사회
위치		-충무로역 -퇴계로, 해화로, 장충로 주변 -각 가로로 구분되는 내부 시가지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동주택(기숙사)	기숙시설, 상업시설
도로현황	계획부지 북측 40M 주 진입도로(중분) 동측 20M 주 진출입도로(정분)	
대지면적	지침: 201,682평 665,550㎡	
	계획: 288,803㎡	
건축면적	필동캠퍼스: 184,259.71㎡	학생기숙사: 78,644㎡
	49,640㎡	21,859㎡
연면적	235,718㎡	192,990㎡
용적률	127%	242%
주차대수	지침대수 : 4000대	
	기존확보 : 61대	
	계획대수 : 3685대	



그림 1. D 대학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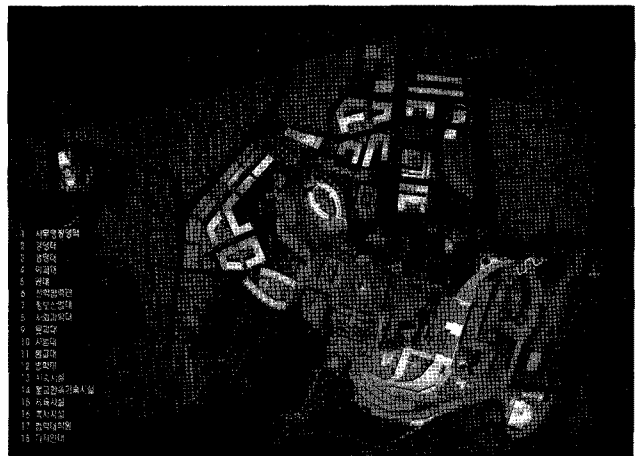


그림 2. D대학교의 마스터플랜

1) 동국대학교 중장기캠퍼스 커뮤니티 마스터플랜 2006. 4

생태 축과의 연계성 부족, 주변 도심지역과의 구조적 단절, 지역커뮤니티와 기능적 상호연관성의 부재 및 열린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에 소개되는 마스터플랜이 목표로 한 것은,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실도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친환경적 캠퍼스를 조성하고, 다양한 위계의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오픈된 공간을 가진 캠퍼스를 조성하여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캠퍼스로서, 지역사회로 확장된 생태 캠퍼스, 자연과 지역사회와 상의 상관하는 캠퍼스로 계획 하고자 시도 하였다.

2.2. 마스터플랜 제안에 대한 분석

1) 교육시설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먼저 교육시설로서의 문제점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동의 물리적 부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각 시설들에 다양한 기능의 혼재로 인해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해결로써 캠퍼스와 바로 인접한 서측 필동부지 일부분을 매입하여 디자인대학원과 법학대학원캠퍼스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교육동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필동의 연극영화학과 관련 영상커뮤니케이션센터와 연계되어 필동방향으로 새로운 캠퍼스영역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바, 교육동의 증가가 캠퍼스 외적 영역과의 관계성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어진다.

한편, 캠퍼스 교육동의 증축이외의 문제로서, 다음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학제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조닝 계획의 미약함 역시 지적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조닝계획²⁾은 학생들의 동선이 집결되면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그림 3. 상부 기존 거점에서 보이듯이 한군데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심한 경사지로 인하여 수직보행동선의 고저차를 적당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그림 3. 하부의 개선안에서는 캠퍼스 내 5개의 커뮤니티 거점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적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정도광장, 만해광장 이외에 캠퍼스로의 주요 접근지로 계획되고 있는 정문부분과 불교체험한옥기숙촌인 정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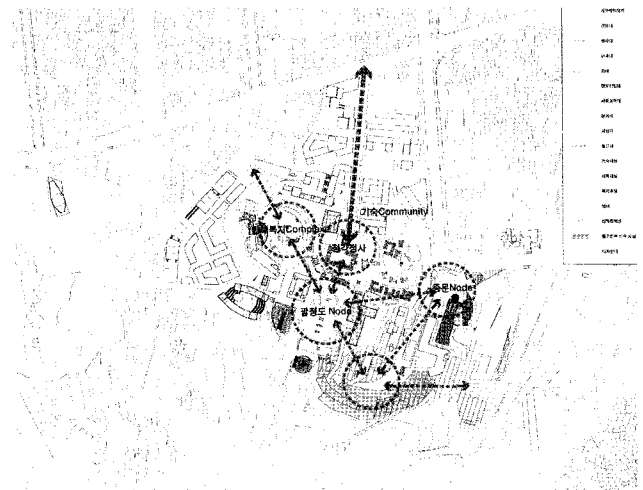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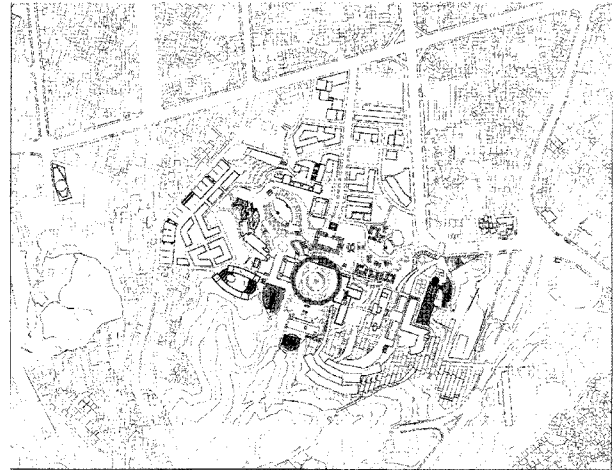


그림 3. D대학교의 기존 거점(상) 및 개선안(하)

사, 그리고 중문부분을 중심으로 보행자동선들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어 모여들고 퍼져 나갈 수 있는 중심구역 등 캠퍼스 내부에 총 5개 거점의 열린 공간을 계획하여 보행자 동선에 의하여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지고 캠퍼스의 고저차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하였다.

2) 지역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기존의 캠퍼스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과의 열악한 접근성과 기능적 연결성의 부재, 주변상권의 발달과 인쇄소의 난립으로 인한 캠퍼스 주변 주거기능의 쇠퇴 및 D대학교의 기숙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D대학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안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역 커뮤니티와의 단절에 대한 대책으로 메인캠퍼스를 중심으로 충무로역 영상커뮤

2) 참고문헌 1. p.14, 03. 캠퍼스 공간 주제의 기본방향, 03-2-2. 위계별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캠퍼스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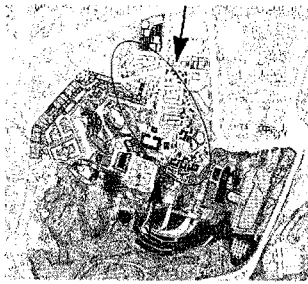


그림 4.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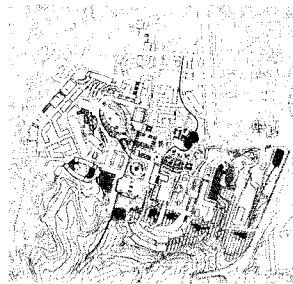


그림 5. 녹지계획

니케이션센터와 장충동 충무초등학교, 장충단공원의 첨단 디지털 미디어도서관의 Off Campus가 인접부지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그림 4. 토지이용계획³⁾에서 보이듯이 대학·지역사회의 연결거점으로서의 대학 기숙촌 조성을 제시하였다. 기숙촌의 조성은 캠퍼스 내부 경계부지 삼면에 기숙사를 배치됨으로 인해 주변 기숙 커뮤니티로 뻗어나가는 연결 거점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기능적 연결을 유도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장차 캠퍼스 인근지역에서 인쇄소와 상업시설의 침투에 따라 학교 인접지역의 감퇴되고 있는 주거기능을 보완하여,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이어주는 매개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계획은 남산의 녹지축이 필동캠퍼스에 의하여 단절이 되어 남산이라는 훌륭한 자연자원에 대한 캠퍼스 내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캠퍼스 영역 안으로의 심미적, 기능적 이용가능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산생태권의 도심확장으로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림 5. 녹지계획⁴⁾에서 보이듯이 녹지축과 수계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세워 남산에서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수계의 흐름을 비오톱⁵⁾의 설치로 경관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남산 녹지축의 흐름을 최대한 유지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계획을 세우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학교 주변부지에서 남산의 녹지 수계 축을 이어줄 수 있는 공원, 녹지부지의 절대부족이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메인 캠퍼스에 대한 평면적 확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생태축의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계획으

로 캠퍼스 북측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불교체험 한옥 기숙촌을 조성하여 D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며 남산녹지축을 도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그 외에도 건물의 옥상을 녹화시켜 캠퍼스 영역 안에서의 녹음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시도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캠퍼스의 녹지 계획은 단순한 대학교의 공간개발 계획의 수립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포함한 계획이라 사료된다. 즉,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심내의 도시경관의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의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캠퍼스의 녹지계획은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도시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후에 중요한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식, 정보, 예술, 문화, 경제산업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⁶⁾한다고 볼 때, 지역사회 내로의 캠퍼스 문화의 적극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부족한 시설·공간의 면적은 고저차를 이용한 입체적인 지하개발과 지역거점시설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K대학교의 사례

3.1. 캠퍼스 개요 및 계획 개념

1) 계획의 개요

표 2.는 K대학교의 건축 개요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6.은 조감도, 그림 7.은 마스터플랜⁷⁾을 보여준다.

K대학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455,794㎡, 건축면적 67,408㎡, 연면적 257,116㎡ 용적률 49.16%의 건축 밀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지구), 일반미관지구이다.

기존의 시설들은 그동안 많은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한

표 2. K대학교의 건축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대지면적	137,864평 455,749㎡
건축면적	20,390평 67,408㎡
연면적	77,778평 257,116㎡
용적률	49.16%
주차대수	1,316대 (법정 1,286대)

3) 참고문헌 1. p.7, 02. 마스터플랜 제안, 02-2-2. 토지이용계획
 4) 상동, p.17, 04. 캠퍼스 공간 주체의 기본방향, 04-1-1. 생태 네트워크가 구축된 공간구조
 5) 비오톱(biotope)은 생물의 서식공간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생물서식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생태학 용어.

6) 경상북도, 경산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p.107, 1991
 7)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200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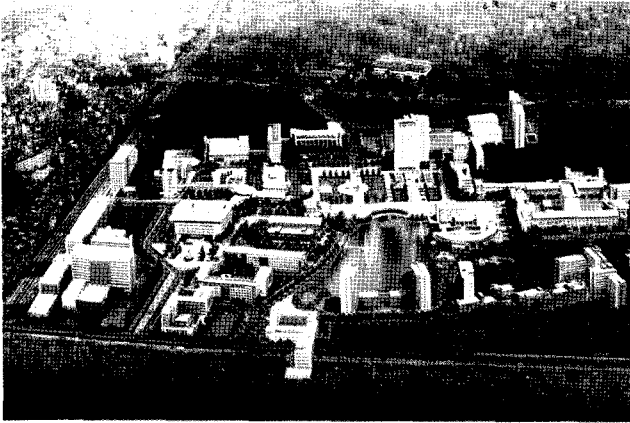


그림 6. K대학교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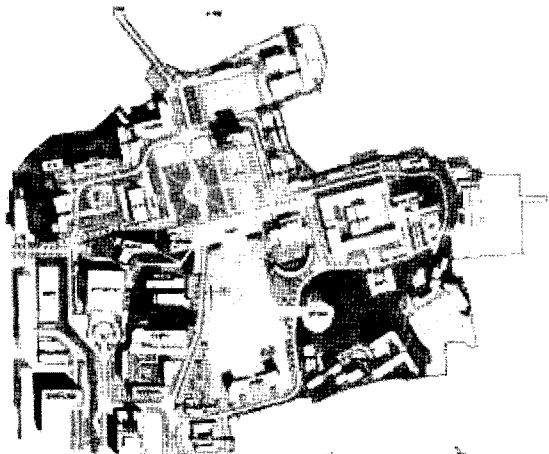


그림 7. K대학교의 마스터플랜

계에 이르러, 효율적인 시설의 재구성과 확충시설의 유기적 배치, 그리고 합리적인 동선체계 등을 통해 향후 성장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다.⁸⁾

2) 기존 계획의 문제점과 새로운 계획의 개념 및 목표

K대학교의 기존의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시설로서의 내부적 문제가 나타난다. 중심축의 부재, 도로의 순환성 결여, 주차공간의 부족, 외부공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설의 재구성과 확충시설의 유기적 배치, 그리고 합리적 동선체계 등을 통해 향후, 성장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캠퍼스를 계획이 요구된다.

한편, 남측 상업시설지구와 서측 지구단위계획지구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최대화하여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열린 캠퍼스로서 대학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역시 동시에 고려되지 않

8)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1장 서론, 1-2 계획의 목적 p.3, 2003. 12

을 수 없다.

특히, K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도심형 캠퍼스로는 드물게 풍부한 자연녹지와 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기존시설의 유휴공간이나 유보지 등도 적극적으로 녹지화하여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도심녹지대를 형성하여 생태공간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

3.2. 마스터플랜 제안에 대한 분석

1) 교육시설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캠퍼스의 동선체계는 캠퍼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캠퍼스내의 연결, 각 건물간, 건물과 공간 또는 각 공간 간의 연결이 무리 없이 이루어져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⁹⁾해야 한다. K대학교의 경우, 현재 상황은 그림 8. 기존의 간선도로¹⁰⁾에서 볼 수 있듯이 캠퍼스 내부는 단절된 간선도로로 인해 시설 간 무분별한 보행동선, 시설로의 모호한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 순환성의 결여는 효율적인 동선 체계의 저해요인으로, 계열별 건물의 체계적 배치가 결여된 토지이용, 보행자 중심의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보도와 차도의 혼재, 각 계열간의 서비스 동선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이에 더하여 캠퍼스의 규모 팽창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노상 주차에 의한 경관저하,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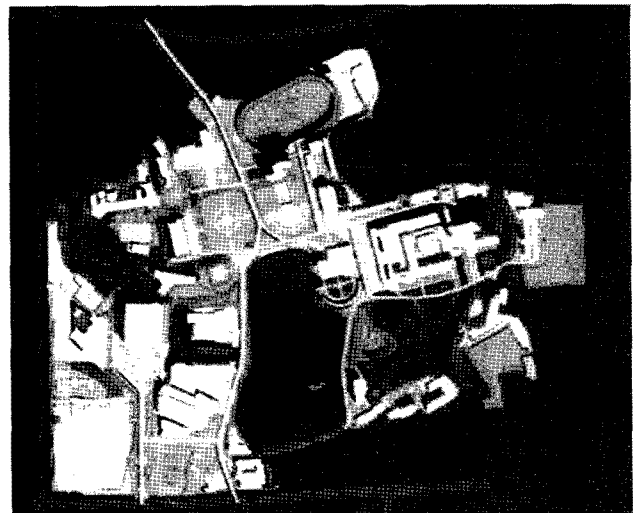


그림 8. 기존의 간선도로

9) 참고문헌 10 참조 p.204

10)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마스터플랜 p.12 2장 캠퍼스 현황

차량이 캠퍼스 중심부를 통과하여 건물 주변과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어 캠퍼스가 보행자 중심의 활동공간으로서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선도로 계획안¹¹⁾(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단절된 캠퍼스내의 도로를 루프형(LooP-type)순환도로로 일체화하였다. 먼저,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순환도로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시설확장에 대비한 주차수요를 산정하고 스포츠 콤플렉스 지하, 그리고 능동로측 진입구에 통합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계획은 상기의 기존 캠퍼스의 선형 동선구조(Band-type)와 파빌리온형의 블록단위로 인해 문제 가된 보차간의 동선분리 및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공간의 체계가 보다 명확해 졌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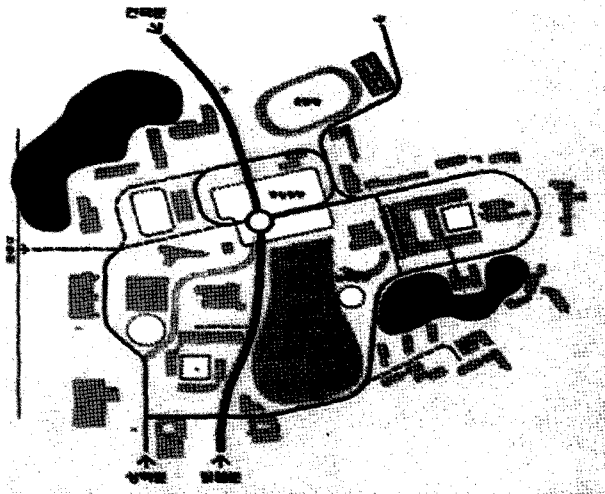


그림 9. 간선도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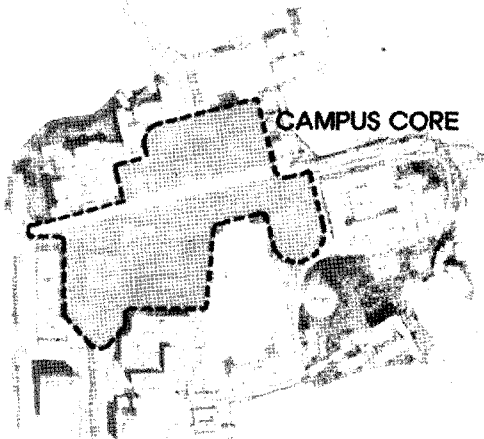


그림 10. 캠퍼스 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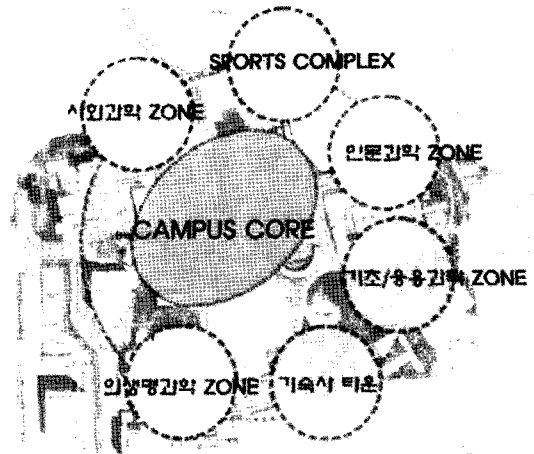


그림 11. 클러스터의 구성

한편, 캠퍼스를 구성하는 건물 축과 중심도로의 선형이 서로 상이한 구도를 이루고 있어 캠퍼스의 시각적 질서가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건물의 격자 패턴과 지형요소, 일감호의 형태가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선형배치가 충돌하여 어색한 교차점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방향에서의 접근에 더하여 서측 능동로부터의 강한 보행자 접근동선을 신설, 조성하여 도서관을 포함해 본관, 새천년관, 학생회관을 잇는 새로운 캠퍼스의 중심지구의 재정립을 꾀하였다.

선형 조정된 캠퍼스의 중심축의 형성은 이를 통해 수직 분수와 상징물이 시설의 축 선상에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캠퍼스의 시각적 질서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캠퍼스 계획은 중심시설에 해당하는 각 건물들이 산재해 있어 캠퍼스의 핵으로서의 기능이나 경계가 모호하였다. 기존 시설물의 배치와 규모는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되어져 유기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새로운 학사계획에 따른 대학활동과 교수활동의 연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닝으로 유사성격의 대학시설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대학별 개발을 유도하고 순환도로 체계로 연계된 대학전체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계획되었다.

2) 지역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일감호 주변은 자연 친화적인 장소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나, 친수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다소 침체된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기 쉽다. 일감호와 일감호 주변 수림의 좋은 경관과 자연 환경은 K대학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11) 상동, p.25 2장 캠퍼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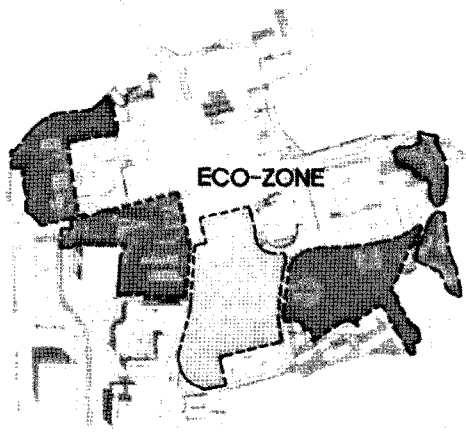


그림 12. 자연녹지대

이를 개발하여 일감호가 갖는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식재 등을 통한 계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그 주변의 것들(Environmental Surroundings)과의 시각적, 기능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감호 주변의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공간과 친수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일감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캠퍼스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심에 위치하는 D대학교와 K대학교의 기존 캠퍼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것이 교육시설로써 혹은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두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상호 연관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교육시설로서의 개선은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고안들이 적절히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교육시설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개선에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대학이 도심의 하나의 부분으로써 지역과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는, 이제까지의

캠퍼스 계획과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변화는 대학 캠퍼스가 교육을 위한 장소로부터 벗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및 사회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대학 캠퍼스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와는 단절된 아카데미즘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접촉가운데서 고등교육이 발전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단지 상징적인 역할만이 아닌 실질적 계기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이다.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상생이라는 화두는 언제나 난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며, 그러한 시도들이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방의 유지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도심의 두 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은 앞으로의 도심에서의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계획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각 대학 캠퍼스가 그것이 속하는 지역과 갖는 연관성은 특수성을 갖고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열립이라는 과제가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자체를 훼손할 만큼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역시 신중하게 대처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도심에서의 대학 캠퍼스의 새로운 자리매김에는 어떠한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보편성을 본 논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동국대학교 중장기 캠퍼스 커뮤니티 마스터플랜, 2006. 4
2.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2003. 12
3. 정숙인 외 1인, 국내·외 대학캠퍼스 시설의 친환경적 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1권 2호, 2009
4. 박건우 외 1인, 대학 캠퍼스 공간운용 분석요소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 2009
5. 최준성, 충남대학교 캠퍼스 리모델링 계획, 건설지 10월호 프로젝트 리포트, 2009
6. 이교일 외 1인, 단국대학교 신 캠퍼스 종합계획, 서울대학

교 공학연구소 용역 보고서, 1995

7. 경상북도, 경산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1991
8. 한광야, 대학캠퍼스의 성장과 경계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시설학회지 6권 2호, 2005. 6
9. 김홍일, 도심형 대학의 캠퍼스주변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형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권3호(통권56호), 2006. 7
10. 박영기 외 1인, 대학캠퍼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제1호 1988. 4
11. 정재욱,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계획기법의 개념 및 연계 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8호(통권82호), 1995. 8

접수 2010. 12. 15

1차 심사완료 2011. 1. 11

2차 심사완료 2011. 1. 14

계재확정 2011. 1. 27